

로마서: 믿음의 삶

16주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로마서 13:1-14

2022년 10월 30일

공지사항

- + 추수 축제 축하
- + 추수감사절 푸드박스 드라이브 | 11월 20일까지 아이템 수집.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커먼즈로 가져옵니다.

- + Griefshare : 휴일에서 살아남기 |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 + 대피소 예배의 밤 | 2주간, 11월 9일 // 저녁 5시 45분, 예배 오후 6시

메시지

-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걸어 왔으며 주제, 강조는 삶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 (로마인이 현실에 대해 말한 모든 것) - 그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편지의 이 특정 부분에서 그것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 우리는 30,000피트에서 지금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 문제는 이것입니다.
-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행하신 일을 보라!’

- 우리가 은혜에 압도되고 마음이 그에게로 이끌릴 때, 그것은 훌륭하고 감동적입니다.
-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바울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말을 합니다.
- 우리는 무언가에 초대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 그러나 그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합니다.
- (이것은 당신의 그리스도 추종자이든 아니든 흥미롭습니다...)
- 두 가지 다른 이야기, 두 가지 뚜렷한 예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지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 누가복음 18장 - “어린이들이 오게 하라”는 이야기
- 마태복음 18장 -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가르치십니다.
- 두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 초대장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어린이처럼 되십시오'
- 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삶. '어린이처럼' 될 때 옵니다.
- 아이들은 흥미로운 역할 모델입니다.
- 직장에서 회의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을 보면 어린이처럼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 어떤 정치인도 “내가 당선되면 나라를 어린이처럼 지혜롭게 다스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 어떤 코치도 “토요일 경기에서 이기려면 아이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 인생에서 "어린이가 같다"는 다른 맥락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모든 예 중에서 왜 어린이들이 그분의 모범이 되셨습니까?
- 여기서 구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같은 것은 어린이가 같은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

- 유치한 자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 완고함, 거부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
- 유치한 것은 발을 구르는 것,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팔을 접는 것 입니다.
- 우리는 어린이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 유치함은 순수함과 개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유치함의 완고함이나 냉소주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애 같은 성인...
-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이와 같을 때 그의 나라 곧 그가 주시는 이 생명을 가득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 어린애 같다는 것은 평범한 한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림: 내 친구는 질문이 많은... 가장 호기심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 때때로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 당신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마지막과 유사하더라도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 아이들이며, 상상력과 창의성,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 반면에 우리는? 우리는 10년, 20년 또는 30년 동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 결과, 원인과 결과, $A+B=C$ 상황이 있습니다.
- 우리는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삽화 : 나는 골프를 친다. 아니면 골프가 나를 친다.
- 인생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합니까? 당신은 그가 당신의 스윙을 풀도록 그를 충분히 신뢰합니까?
- 당신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만큼 그를 신뢰합니까?
- 그것이 그가 말한 이유입니다. 어린이 같이...
-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 중 일부는 유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 다운.
-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꿉니다.
- 지난 주에 Bo와 함께 했던 부분을 살펴보세요.

- 로마서 12:20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20-21

20 반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주라 마실 것;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을 것이다.” 21 악에게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

- 우리의 훈련...반대.
- 내일, 어쩌면 오늘이라도 당신의 적이 될 누군가가...
- 우리의 생각은...좋게, 함께 잡고, 화내거나 후회할 말을 하지 마십시오.
- 사실, 아주 정통한 기도가 있었습니다...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저를 도우셨습니다.
- 그러나 누구에게 묻는지 주의하십시오.
-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 그는 당신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 예수님은 더 나은 '우리 공간의 관리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 “내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
- 그 도전은 13장까지 계속됩니다 ...

로마서 13:1-14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2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 바울은 첫 번째 문장에서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제"가 됩니다.

• 통치 당국에 복종하다, 지배하다를 의미합니다.

• 그가 다음에 말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 그는 '저항'으로 움직인다. 당국에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에는 당신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 이들은 로마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로 정의될 것입니다.

• 때때로 "어떻게 상황이 더 복잡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커뮤니티, 부서지고 지지분한 가운데 사랑의 동정심이 되십시오”.

- 그리고 그가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다음에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로마서 13:5-7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 세금!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싶다면...
-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 그가 “모든 빚을 갚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수익.
- 누구에 대한 존경...
- 누구에게 경의를...
- 그가 식별한 것은 이 무게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만질 수 있는 '빚진' 현실입니다.
- 당신이 “ 빚진 ” 때...
- 존경스러울 정도로 간단해도...

- 당신이 무례하면...당신은 이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당화합니다.
- " 알았 다면 ..."
- 부채, 무게를 생성합니다.

일러스트:반돈

-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맞죠?
- 아무에게도 빛지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무게를 들어 올리십시오. (피)
-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 부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청구서가 옵니다.

로마서 13: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 그 무게는...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결코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다시 빛을 지게 됩니다.
- 당신은 나에게 빛지고 있습니다.
-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빛지고 있습니다.

- 당신이 나에 대해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랑, 그것은 있어야 합니다.
-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빚지고 있습니다.
- 퇴직하지 않는 부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피)
- 하지만 사랑이 정말 답입니다.
- 딱정벌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랑입니다.
- 얼마 전에 나는 누군가가 나의 가르침에 대해 불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나는 그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 그리고 누가 사랑과 진실이 상호 배타적인 생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사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것에 대해 약간의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7-8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 사랑을 진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바울은 이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

위에 세워진 종교 체계.....그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당신이 그것을 놓친 경우에 그는 계속합니다.

로마서 13:9-10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윤리를 확립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종교가 하지 않는 윤리..

• 종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무종교는 또한 자기 중심적이며 단순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 오직 예수만이 변화시키는 이 급진적인 사랑 윤리를 확립합니다.

•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 다시 말해서, 살아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표현입니다.
-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 어린이 여러분, 이것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 아이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얻었을 때 .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뭔가

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료가 될 수 없습니다.

- 아이들은 받지 못한 것을 항상 받는 은총의 상태에서 삽니다.
-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습니다.
- 당신은 내가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독생자를 저를 위해 죽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 그건 미친 짓이야. 우리에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아닙니다.
-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 우리가 창조된 관대한 연인이 되는 방법은 관대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의 사랑.

